

공천전쟁 시작됐다

한나라, 지역구 20% 전략공천·25% 공천배제
민주통합, 인적쇄신 드라이브 절반이상 물갈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전쟁이 본격화됐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천 안을 제시하고 지도부 구성을 마친 민주통합당도 공천 물갈이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이번 19대 총선 공천의 향배는 지역 민심이 좌우할 전망이다. 시민 참여가 시대적 흐름을 형성한다 여·야도 지역 여론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교체에 강력하게 원하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공천 물갈이' 폭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25%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비례위는 경쟁력과 현역 교체지수를 중심으로 객관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 뒤 기준에 따라 하위 25%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을 공천 배제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 144명 가운데 불출마 선언자 8명을 제외한 136명 중 34명은 공천 신청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25%

로 정했지만 끝난 것은 아니고 (25%를) 넘을 수도 있다"며 "평가 기준이 너무 복잡하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작위적이 될 수 있어 교체지수와 경쟁력 두 가지로 간단하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나라당 비대위는 전체 비례대표의 25%를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해 공천을 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전체 지역구(245곳)의 20%인 49곳에서 전략공천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현역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19일 비대위에서 공천안을 최종 확정하고 설 직후에 외부 인사가 위원을 맡는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도부 구성을 마친 민주통합당도 곧바로 공천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총선 기확단을 발족하고 설 직후에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당을 총선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천심사위원회는 당 내외 인사를 반반씩으로 하고 위원장은 조국 교수 등 외부 인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져

'인적 쇄신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반영하듯 한명숙 대표는 15일 대표 선출 수락 연설에서 "국민이 원하는 혁신과 변화를 위해 어떠한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과 노선을 혁신하고 과감한 인적쇄신으로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강력한 개혁 공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 진영이 합류한 민주통합당은 이를 뛰어넘는 공천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역 민심을 키워드로 하는 대대적인 혁신 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과 예비주자들은 당 지도부가 어떠한 공천 물갈이를 제시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반적인 지역 민심이 현역 국회의원들의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천 물갈이가 폭이 최소한 절반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광주시장 설맞이 인파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16일 오전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에 제수용품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물리면서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조짜리 '스마트 원자로' 전남 유치 한다는데

<소형 고효율 고안전도 원자로>

2017년까지 연구로 등 설치 연내 입지 결정...반핵 여론이 변수

전남도가 정부의 중소형 원자로 개발사업인 '스마트 시범 원자로' 실증단지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지역내 원전 반대 여론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이 성사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는 16일 '2012 중앙부처 업무계획 대응방안 보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스마트시범원자로 구축사업'의 실증단지 유치를 적극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 시범원자로 사업은 정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6년동안 국비 1조원을 투입해 중소형원자로의 연구로 시설과 탐수 시설, 홍보관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출력은 9만㎾, 탐수생산은 4만㎾로 인구 10만명이 하루 동안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기존 원자로보다 규모는 작지만 효율이 높고 안전성도 좋은 만큼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700여기의 수요가 발생, 약 350조 원 규모의 원자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계 최초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계획으로, 이번 실증단지는 수출을 위한 경험 축적 등을 위해 건설하는 시범시설로 올해 안에 입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전력 및 탐수와 플랜트 건설에 따

른 전력·탐수 안정성 입증 및 활용 방안 수립'등을 골자로 한 자체 타당성 연구영역을 다음 달 초순대 김승령 교수팀에 의뢰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북의 울진과 영덕, 전북 새만금, 강원 삼척 등이 유지를 받고 있지만 지역발전

기회인 만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원자력사업에서 앞선 경북이 막대한 국비를 가져가고 있지만 우리도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만큼 지역발전은 위해서는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고흥·해남군 등에서 추진했던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하는데 따른 논란도 우려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당지지율 기반 단일후보 내자"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에 야권연대 공식 제안

통합진보당이 올해 총선에서 양당이 정당지지율 기반으로 공천하는 야권연대 방식을 민주통합당에 공식 제안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공동 공약으로 합의하고 선거결과가 정당지지율을 반영하는 노력을 야권연대부터 실천하자"라면서

"정치협상회의를 양당 대표 책임 아래 빠르게 구성하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총선 공천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 "정당지지율 등을 고려하고 지역특점을 해소할 합리적인 기준에 입각해 합의를 이끌어 야권 단일 후보를 내자"라고 제시했다.

통합진보당은 광역별로 양당의 지지율에 따라 공천 지역 수를 배분한 뒤 각 당에서 단일 후보를 공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양당 공동입법과제를 포함해 공동 정책공약부터 우선 합의, 가치중심 선거연합을 실현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광신대학교
편입생모집
~1월17일(화)까지
www.kwangshin.ac.kr
입학문의 (062)605-1114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예술작품으로 빛나는 이태리의 정통 명품 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MUSEO 뮤제오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쁨있는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신세계백화점 금호빌드
뮤제오 메리어트 웨딩홀 동성역 동성교차로 상록회관 KB 국민은행 동성동

이태리 명품수입가구 & 소품 & 실내장식
MUSEO 뮤제오

이태리 명품브랜드 취급사
점보 / 프로바지 / 란자니 / 메데아 / 실바노 데포카 / 체피 / 라콘테시나 / 오리지날레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어트 웨딩홀 건너편)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